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주최 “니꼴라 싸니 초청 포럼 및 콘서트”

신동진(연세대학교, 강사)

최근 국내 몇몇 음악대학 작곡과는 “(뉴)미디어”, “공연예술” 등의 수식어를 덧붙여 단과대 이름을 개명함으로써 실용음악과와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하였다.¹⁾ 이러한 시도는 인구감소로 인해 학생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들의 문제점 뿐 아니라 현대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의 감소를 방증한다. 2013년 서울시향의 상임작곡가였던 진은숙은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 노바’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의 많은 작곡과 인원을 지적하며 “앞으로 음대 작곡과는 사라질 것이며,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²⁾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진은숙의 예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했음에도 많은 작곡과 학생들은 졸업 이후 현대음악 작곡가로의 진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최대의 위키 사전인 ‘나무위키’는 현대음악에 대해 “현대미술과는 다르게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데에 실패한 영역으로 여겨진다”라고 적고 있다.³⁾ 이러한 현대음악의 위기 속에서 2023년 3월 6일 연세대학교 체임버홀에서 열린 “니꼴라 싸니 초청 포럼 및 콘서트”는 현대음악의 가능성을 재고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행사였다. 또한 이제 막 현대음악에 발을 들인 작곡과 학생들에게 유럽 음악계의 새로운 사고와 작곡법을 소개하고, 앞으로

- 1) 2023년 서울신학대학교는 예술학부 교회음악과의 ‘작곡’ 전공을 ‘아트&뉴미디어 작곡’으로 변경하였다. 박용미, “지성·인성·영성 ‘맞춤형 교육’... 새시대 인재 키운다,” 『더미션』 (2022년 9월 2일),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98> [2023년 5월 4일 접속].
- 2) 당시 진은숙이 지적한 국내 현대음악의 문제점은 첫째, 작품이 쏟아지지만 충분한 여과 과정(filtering)을 거치지 않아서 범작이나 태작(馱作)이 대부분이고, 둘째, 연주자들이 충분한 리허설 시간을 갖지 못해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기 어려우며, 셋째, 전달할 메시지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현, “작곡가 진은숙의 ‘돌직구’... 作曲科 사라져야 음악 발전,” 『아트조선』 (2013년 4월 10일), http://art.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1/2013041100655.html [2023년 5월 30일 접속].
- 3) “현대음악,” 나무위키 (최근 수정시간: 2022년 12월 23일), <https://namu.wiki/w/%ED%98%84%EB%8C%80%EC%9D%8C%EC%95%85> [2023년 5월 30일 접속].

의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탈리아 페라라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학자 니콜라 썬니(Nicola Sani, 1961-)는 디지털 악기와 전통악기를 함께 사용하는 전자음악 분야의 대가로, 1960-70년대 이탈리아에서 새 음악 운동을 이끈 도메니코 과체로(Domenico Guaccero, 1927-1984)에게 작곡을 사사하였고, 조르조 노톨리(Giorgio Nottoli, 1945-)와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에게 전자음악을 배웠다. 썬니의 작품들은 음반회사 스트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와 음악출판사 수비니 체르보니(Suvini Zerboni) 등을 통해 출판되었고, 그가 참여한 비디오 예술은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에서 1등상과 프리스 이탈리아(Prix Italia)에서 특별 심사위원상 등을 수상하였다. 음악학자로서 그는 루이지 노노(Luigi Nono, 1924-1990)와 지아친토 셀시(Giacinto Scelsi, 1905-1988)의 재단에서 일하며 두 작곡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에나 음악 연구소(Accademia Musicale Chigiana)의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며 이탈리아의 대중에게 현대 음악가들을 꾸준히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니콜라 썬니, 지평선 너머 소리의 단편들”(Nicola Sani, Sound Fragments beyond the Horizon)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행사는 신진 학자들의 학술연구로 구성된 1부와, 썬니의 세 편의 현대음악 작품을 공연한 2부로 이루어졌다. 음악학자 신동진은 “1950년대 이후 이탈리아 음악의 새로운 경향들: 노노(Luigi Nono)에서 썬니(Nicola Sani)까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다름슈타트 국제하게 현대음악강좌(Internationale Ferienkurse für Neue Musik Darmstadt)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작곡가들을 시작으로 전자음향의 사용, 음색 및 텍스처의 강조, 미분음과 소리의 가능성 탐구 등을 실험한 이방가르드 작곡가들을 소개하였다. 신동진은 이탈리아 현대음악의 계보를 노노와 마데르나(Bruno Maderna, 1920-1973)로부터 시작하여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 셀시, 에반젤리스트(Franco Evangelisti, 1926-1980)를 거쳐 썬니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각각의 작곡가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음악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음악이론가 김유미의 발표는 썬니의 2부 연주곡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일종의 무한대처럼》(Come una specie di infinito, 1997)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음정관계, 모티브 발전, 작품의 구조 등을 분석함으로써 두 악기의 음악적 흐름과 교류가 만들어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화’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두 학자의 발표에 이어 마련된 “니콜라 썬니와의 대화”는 학생들에게 썬니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라운드테이블에는 연세대학교 작곡과 박사과정의 이하윤과 편도아가 대표 질의자로 지정되었다. 이하윤은 최근 너무나 많은 음악양식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젊은 현대 음악가들이 나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는데,

싸니는 어느 하나의 양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싸니는 자신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소리를 실험한 베리오의 전자 음악, 전통적인 작곡 기법을 거부하며 새로운 음악을 추구한 에반젤리스트의 실험정신, 미세한 음조에 대한 관심과 음표 사이의 더 작은 간격을 사용하여 내면세계를 탐구한 쉘시에게서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다. 특히 싸니는 단음의 순수한 소리를 발굴한 쉘시의 기록보관소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철학적, 미학적인 영감을 받았고, 소리와 침묵 사이의 경계와 함께 음악과 공간과의 관계를 탐구하여 이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2부의 음악회는 싸니의 《일종의 무한대처럼》을 포함하여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RAW》(2005)와 현악3중주를 위한 《Löico》(2021)를 선보였다. 《RAW》의 작품명은 “war”의 알파벳을 거꾸로 나열한 것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았다. 작품에는 왼손 손가락으로 지판을 강하게 치는 소리, 활대로 현을 때리는 꼴레노 바투토(col legno battuto), 손가락으로 현을 세게 뜯어 타악기의 효과를 내는 스냅 피치카토(snap pizzicato)등 연주자의 높은 기량을 요하는 다양한 특수주법들이 사용되었고, 바이올리니스트 최해성(서울시향)이 만들어내는 악기의 원초적인 소리는 전쟁에 대한 싸니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였다. 《일종의 무한대처럼》은 싸니가 자신의 오랜 지인인 음악학자 페스타로짜(Luigi Pestalozza, 1928-2017)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한 곡으로, 두 친구의 우정 어린 대화를 그린 선율선과 실험적인 음색은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연세대)와 피아니스트 박보운 교수(국민대)의 뛰어난 연주로 구현되었다. 《Löico》는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의 『신곡』(1308-1321) 중 ‘지옥’편 제27곡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원서 텍스트에 사용된 “논리적”(logical)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고어를 작품명으로 한다. 작품에서 싸니는 멀리 떨어진 과거의 기억과 오늘날의 현대의 음악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였고, 음악과 공간 사이의 오랜 탐구를 반영하여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소리를 실험적으로 조합함으로써 다차원적인 음향을 표현해 내었다.

‘아르스 노바’를 10년 넘게 운영하며 누구보다 국내 현대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진은숙은 2018년 12년간 몸담았던 서울시향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주었고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였으나, 서울시의회 등은 상임 작곡가가 서울시향을 위해 곡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였고, 관객이 많지 않은 “돈 안 되는” 음악회를 지적하며 예산을 줄였다.⁴⁾ 대중들로부터, 또한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국내 현대음악

4) 백승호, “[허프인터뷰] 작곡가 진은숙이 서울시향을 떠난 이유를 직접 해명하다 2,” 『허프포스트』 (2018년 1월 24일) <https://www.huff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3893> [2023년 5월 30일 접속].

의 미래는 어떠한가? 현대음악은 실험적인 예술이 팽배했던 20세기 세계대전 후 발생한 잠깐의 해프닝이었을 뿐이며, 오늘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을 수는 없는 걸까? 그렇다면 현대음악은 왜 필요한 것일까?

싸니는 2017년 “새로운 열린 작품을 위해”(Per una nuova Opera Aperta)라는 제목의 TED 강연에서 현대음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⁵⁾ 그는 기술과 세계화가 전례 없는 수준의 음악적 다양성과 실험으로 이어진 오늘날, 급변하는 음악 환경은 관객의 요구와 관심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적 창의성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현대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많은 음악인들은 현대음악의 역사적, 학문적 중요성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으나, 이를 꾸준히 지원해 줄 국가 관계자를 설득할 만한 이유와 열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싸니가 단지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음악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양길에 접어든 국내 현대음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작곡가들 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계에 몸담고 있는 연주자, 교육자, 음악 학자들의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이 요구된다. 이번 연세대학교에서의 행사가 젊은 음악가들에게 현대음악에 대한 애정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5) TEDx Talks, “Per una nuova Opera Aperta | Nicola Sani | TEDxYouth@Bologna,” *Youtube Video* (2017년 3월 4일) <https://www.youtube.com/watch?v=gS078GAvhuk> [2023년 5월 30일 접속].